

## 18세기 경상도 사대부의 금강산 여행과 그 특징

- 李東沆의 『海山錄』을 중심으로 -

정재훈\*

- I. 머리말
- II. 이동항과 <해산록(海山錄)>
- III. 금강산과 여행일기
- IV. 이동항 기행의 특징
- V. 맺음말

### 국문초록

16세기부터 증가한 사대부의 일기는 18세기에는 더욱 확대되어 사대부의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이동항(李東沆, 1736~1804)의 『해산록(海山錄)』은 여행일기로서 18세기 후반에 경상도에서 살았던 사대부가 금강산을 다녀오면서 기록한 것이다.

이동항의 금강산 여행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 첫째, 경상도에서 관직을 가지지 않은 사대부로서 흔히 가던 여행장소가 아니라 금강산을 여행한 점이다. 둘째, 금강산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돋보인다는 점이다. 18세기에는 일기 형식의 글쓰기도 더욱 유행이 확대

\* 경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 jinsojung@knu.ac.kr

되었고, 또 대상에 대한 상세한 묘사 역시 글쓰기의 방식으로 유행하였는데, 이러한 사례의 하나로서 의미가 있다.

셋째, 여행과정에서의 일상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서(篆書)쓰는 것에 일가를 이루었던 이동항은 여행 도중에 발견한 명필의 글씨를 유의하여 기록하였고, 또 전서를 써주기도 하였다. 또 정자나 관청에 걸렸던 편액들의 작성 과정도 서술하였다. 넷째, 다른 자료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여행과정에서의 경비나 물품 등 여행지원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주제어

이동항, 해산록, 금강산, 동해안, 전서(篆書)

## I. 머리말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많은 일기를 남겼다. 이러한 일기는 시기별로도 다양하게 분포하지만 주제면에서 볼 때에도 일상생활에서부터 관직생활, 유배생활, 전쟁, 여행, 공동체활동 등 모든 생활의 영역에 걸쳐 있다. 조선시대의 일기자료는 이러한 다양한 일상의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인 관찬사료나 정리된 기록인 문집 등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진솔하고도 생생한 인간의 삶을 증거해 준다는 점에서 최근에 매우 각광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볼 일기는 여행일기로서 18세기 후반에 경상도에서 살았던 사대부가 금강산을 다녀오면서 기록한 것이다.<sup>1)</sup> 조선시대에서도 18세기는 다른 시기와는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16세기부터 증가한 사대부의 일기는 18세기에는 더욱 확대되어 사대부의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한문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삼은 것은 이전부터의 일이었지만 18세기에는 일상을 산문으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경향이 대단히 증가하였다. 이전보다 기록의 상세함과 풍부함이 더하여졌다. 이런 경향은 일기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또한 18세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선의 국내를 여행하는 경향이 이전에 비할 수 없이 높아졌다. 조선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국토와 지리에 대한 재인식을 하는 경향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발전된 경제적 부로 인해 구축된 여행의 인프라는 다양한 여행을 자극하기도 하였다. 물론 대부분 여행에 참여한 사람은 관인이나 사대부가 중심이었던 한계는 있다.

---

1) 여행에 관한 일기는 여행일기, 기행일기 등으로 부르는데, 일기의 분류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금강산과 동해안의 명승지를 구경하고 온 일기이므로 여행일기 혹은 기행일기로 정의하되, 넓은 의미에서는 여행일기로 파악하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녀온 여행의 경우 기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행일기로도 파악하였다. 따라서 여행일기와 기행일기를 맥락에 따라 사용하였다.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 범주에 대한 논의」 『국학연구』 35, 2018 참조.

이동항이 금강산과 동해안의 명승지를 다녀오면서 기록한 여행일기인 『해산록』은 그런 점에서 18세기 후반의 조선에서 관인이 아닌 사대부로서 여행이 가졌던 의미를 살펴보는 데에 매우 흥미로운 자료이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이야 이미 고려 때부터 중국에 알려질 정도로 유명하였지만 실제로 많은 제약 때문에 금강산 여행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조선의 조건에서 여행을 하는 것은 많은 제약, 시간과 비용 뿐만이 아니라 여행을 할 수 있는 조건, 숙박시설이나 교통 조건의 제약 때문에 그러하였다. 따라서 경상도라는 지방에서 사대부들이 여행을 하더라도 그것은 대체로 경상도 내에 국한되어 지리산이나 청량산 혹은 유명 서원의 순례 등의 여행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동항의 여행은 당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여행에 참여한 점에서, 또 여행에서 최고의 승경으로서 선호된 금강산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경상도의 사대부가 자주 찾지 않았던 금강산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점이 적지 않다. ‘해산록(海山錄)’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일기는 금강산 만을 대상을 하였던 것은 아니고 동해안의 명승지와 설악산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하게 살펴겠다.

## II. 이동항과 〈해산록(海山錄)〉

〈해산록(海山錄)〉은 저자 이동항(李東沆, 1736~1804)의 문집인 『지암선생문집(遲庵先生文集)』에 수록되어 있다. 이동항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성재(聖哉), 호는 지암(遲庵)이다. 경상도 칠곡(漆谷) 석전(石田)에 살았다. 고조는 대사헌을 다섯 차례나 지낸 이원록(李元祿, ? 1688)이며, 증조는 생원인 이현명(李顯命), 본생 증조는 병조좌랑을 지낸 이기명(李基命), 조부는 이세형(李世珩, 1685~1761), 부는 이항중(李恒中, 1708~1758)이다. 어머니는 병조좌랑을 지낸 김징경(金徵慶)의 딸로서 강릉김씨이다.<sup>2)</sup>

이동향은 칠곡군(漆谷郡) 지천면(枝川面) 상지리(上枝里)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독서를 즐겼으며, 조부로부터 『통감(通鑑)』, 『사기(史記)』 등을 배웠다. 이후 7차례나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백불암(百佛庵) 최흥원(崔興遠)과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0~1781) 선생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고 서예와 학문에 전념하였다.

그는 천성이 시와 문을 읊조리는 것을 좋아하였고, 반면에 문장꾸미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표정과 자태가 맑고 높았고, 격조가 기발하면서도 고아하여 자못 일반의 선비와는 다른 풍모가 있다고 하였다.<sup>3)</sup> 또한 8세부터 최서림(崔瑞林)에게서 전서(篆書)를 익히기 시작하여 전서로 일가를 이루어서 허목(許穆, 1595~1682) 이후 제일인자로 칭송될 만큼 명망을 얻었다.<sup>4)</sup> 당시 사람들이 그의 글씨를 약간이라도 얻으면 매우 귀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 자신 역시 서화(書畫)에 각별한 벽(癖)이 있어서 선현의 필찰(筆札)이나 고금의 명화(名畫)를 많이 모아서 보는 것을 즐겨하였다.

그리고 전고(典故)에도 밝았으며, 역사와 인물, 풍속과 보학(譜學) 등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박식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타고난 성품이 산수를 좋아하여 명산대천을 두루 여행하고 시문을 남기기도 하였다. 지리산, 속리산을 여행하고서 <방장유록(方丈遊錄)>, <유속리산기(遊俗離山記)>를 남겼고, 금강산과 동해안의 명승지를 유람하고서 남긴 것이 <해산록(海山錄)>과 <풍악총론(楓嶽總論)>이다. 이 <해산록>은 따라서 여행기문 이면서 동시에 날자별로 작성되어 일기체로 적었기에 일기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2) 李東沆, 『遲庵先生文集』(국립중앙도서관, 古3648-62-544-1-3) 권6, <行略> 참조. 이후 이동향의 행적에 관한 사항은 위 문집의 <행략>을 주로 참조하였으며, 이 경우 주석을 추가하지 않음.

3) 李東沆, 『遲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영인본(한국역대 문집총서2408, 1994), 459쪽 참조. “性喜吟詠, 不事彫刻, 而意致清遠, 格調奇高, 不染於俗儒.”

4) 전서에 대한 이동향의 평가는 아쉽게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화인명사전인 『근역서화징(楮域書畫徵)』이나 최근에 간행된 『한국역대서화가사전』 등에서도 전서가, 혹은 서예가로서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동항은 일찍부터 당대의 재상이었던 채제공(蔡濟恭, 1720~1799)과 망년지교를 나누는 가까운 사이였다. 채제공은 지위가 높아진 다음에도 여러 번 그와 만나기를 청할 정도로 가까웠다. 금강산 여행을 가는 이동항에게 역서(曆書)와 환약(丸藥)을 주어 격려하였으며 다녀온 다음에 지은 기행록을 청해 보고는 매우 기뻐하였다고 한다. 이를 보면 이동항의 금강산 여행에는 채제공의 후원이 있었으며, 주변의 수령들이 그의 일행에게 후한 대접을 하였던 이유를 알 수 있다.

<해산록>이 지어진 시기는 1791년(정조 15)이다. 그해 3월 17일에 남한산성에 있는 우경모(禹景謨)의 집에서 10일간 머물며 행장을 마련하여 여행길에 올라서 수포교에 이르러서 채제공이 보내준 선물을 받고, 3월 28일에 해화문을 나서 금강산과 동해안, 설악산 등을 두루 여행하고 5월 21일 서울로 돌아왔다. 따라서 그의 여행은 1791년 3월에서 5월에 걸쳐서 55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동항은 이 여행에 대해 자신이 직접 여행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

(전략) 원나라 천자는 보시를 하였고, 명나라 고황제는 기뻐하며 칭탄하였다. 우리나라 밖에 사는 야만인들까지도 이 풍악산을 높이 우러러 보는 것은 대체로 부러워하는 소문을 들은 데서 나온 것이다. 해외의 궁벽한 시골에 위치하여 있어도 천하에서 웅장하고도 기이한 경치로 이름난 것은 신령스럽고도 참되어 신선들만이 산다는 아름다운 세계로 믿어졌기 때문이니, 이것이 사람마다 모두 보고 싶어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 밑에 태어나서도 평생토록 이 산을 구경하지 못하고 만다면, 동쪽의 노(魯)나라에 가서 공자(孔子)를 뵈지 못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을 것이다. 나도 또한 뜻이 있는 지가 오래 되었으니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다만 선배님들이 남긴 유록(遊錄)들을 읽으며, 정신적으로 상상만 하여 볼 뿐이다.(하략)<sup>5)</sup>

이로써 본다면 금강산을 가고자 하였던 이유로, 해외에까지 널리 알려

5) 李東沆,『遲庵先生文集』권4, <海山錄> “元帝之所捨施皇明高皇帝之所興歎。域外蠻夷之所瞻仰。蓋出於聞風欽艷。而處海外窮僻之鄉。騁天下雄奇之名。靈眞窟宅瓊瑤洞天。則固人人所願見。而我東人生於山下終身不見此。何以異於生居東魯不見宜聖乎。余亦有志者久。而迄未一往。只取前輩遊錄。以寄神想而已(하략)”

18세기 경상도 사대부의 금강산 여행과 그 특징(정재훈)

진 금강산을 직접 보는 것은 마치 노나라에 가서 공자를 뵈는 것과 같이 지극히 당연하고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을 밝히고 있다.

이동항의 <해산록>의 일기를 따라서 밝힌 노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해산록』 여행 일정

월	일	여행 일정	비고
3	28	혜화문 - 양주 고주천(古州川)	
	29	가신리(加甚里)	
	30	양문역(楊門驛)	
4	1	백운루(白雲樓)	
	2	지포(芝浦)	
	3	역촌(驛村)	
	4	정자연(亭子淵)	
	5	생창역(生昌驛)	
	6	금성(金城)-고순태가(高順泰家)	
	7	통구창점(通溝倉店)	
	8	신원(新院)	
	9	장안사(長安寺)	
	11	지장암(地藏庵)-백천동(百川洞)-업경대(業鏡臺)-황천강(黃泉江)-지옥문(地獄門)-영원암(靈源庵)-삼불암(三佛庵)-백화암(白華庵)-표훈사(表訓寺)	
	13	원통암(圓通庵)-수미탑(須彌塔)-혈성루(歇惺樓)-표훈사	
	15	보덕굴(普德窟)-마하연(摩訶衍)-만회암(萬灰庵)-정양사(正陽寺)	
	16	묘길상지(妙吉祥址)-불지암(佛知庵)-유점사(楡岾寺)	
	17	경고촌(京庫村)	
	18	발연사(鉢淵寺)	
	20	온정(溫井)-나점(蘿點)-신계(新溪)	
	21	구룡연(九龍淵)-옥류동(玉流洞)-장진(長津)	
	22	운암점(雲巖店)	
	23	통천(通川)	
	24	흡곡현(歙谷縣)	
	25	시중대(侍中臺)-흡곡현아(歙谷縣衙)	
	27	층석정(叢石亭)-풍계서원(楓溪書院)	
	28	통천-남애(南涯)	

	29	양진역(養珍驛)-몽천사(夢泉寺)-삼일포(三日浦)-사선정(四仙亭)-몽천사	
	30	고성(高城)-해산정(海山亭)-점사(店舍)	
5	1	입석진(立石津)-군옥대(群玉臺)-해금강(海金剛)-칠성봉(七星峯)-점사	
	2	영랑호(永郎湖)-현종암(懸鍾巖)-감호(鑑湖)-비래정(飛來亭)-석진(席津)-명파역(明波驛)-대금진(大金津)	
	4	화진호(花津湖)-영월루(映月樓)-오리진(梧里津)	
	5	교암진(橋巖津)-청간정(淸澗亭)-낙산사(洛山寺)	
	6	관음굴(觀音窟)	
	7	강선대(降仙臺)-신흥사(新興寺)-천후대석(天吼大石)-염조굴(念祖窟)-동석(動石)-극락암(極樂庵)	
	8	비선대(飛仙臺)-와선대(臥仙臺)-극락암-백담사(百潭寺)	
	9	황룡담-사미암(沙彌庵)-영시암(永矢庵)-만경대(萬景臺)-오세암(五歲庵)	
	10	봉정암(鳳頂庵)-영시암	
	11	한계폭(寒溪瀑)-옥류동-원통점	
	12	인제현(麟蹄縣)	
	14	가화리(加禾里)-수곡점(水谷店)	
	15	청평동(淸平洞)-이역가(李櫟家)	
	16	이목가(李榮家)-소양정(昭陽亭)-춘천읍	
	17	안보역(安保驛)	
	18	황사곡(黃沙谷)-정언(正言) 이종영가(李宗榮家)	
	19	녹동(鹿洞) 김철경가(金哲慶家)	
	20	사릉전촌(思陵前村) 우성가(禹姓家)	
	21	경산(京山)-망우리(忘憂里)-전교(箭郊)-남성(南城)	

위의 일정을 고려해보면 금강산을 본격적으로 여행한 일정은 4월 9일부터 21일까지이며, 4월 22일부터 관동팔경과 설악산(5/7~11일) 등지를 여행하였다. 이러한 일정을 보면 <해산록>은 금강산을 목적지로 출발한 여행일기이기는 하지만 내·외 금강산 및 해금강, 그리고 동해안의 관동팔경 및 설악산 등지를 모두 여행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해산(海山)’이라는 표현은 단지 해산정(海山亭)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바다와 산의 명승을 다녀온 기록이라는 의미로 제목을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산(海山)’이라는 이름은, 해금강에서 뱃놀이를 하고 난 후의 소회에서도 확인이 된다.

지난 날 단발령(斷髮嶺)에서 구름이 걷힌 일과 구룡연(九龍淵)에서 기이하게 논 것과 남애(南厓)에서의 해맞이를 한 것들은 다 귀신들이 몰래 도와준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바다에서의 뱃놀이에 바람이 자고 물결이 고요하여 뱃전을 치며 즐겁게 노닐어서 흥이 더할 수 없도록 즐기고 돌아온 것은 진실로 강물 귀신인 풍이(馮夷)와 바다 귀신인 해백(海伯)이 드러내놓고 우리를 도와준 것이라고 하겠소이다. 우리들의 나이가 50이 넘어 비로소 신선들이 사는 굴에서 놀아 인간 세상에서 묻혀 온 가슴속의 회포가 이제부터 환하게 튀워졌으니, 어찌 다행이지 않겠소?<sup>6)</sup>

### Ⅲ. 금강산과 여행일기

금강산은 이동항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둘러보는 대상이었다. 금강산은 고려시대부터 이미 그 명성을 떨쳤다. 주로 고려시대에는 비로사나불의 주재처(駐在處)로서 인식된 금강산은 조선시대에도 많은 지명이 불교에 근거할 만큼 불교와 연관이 깊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한편으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빼어난 경치와 기이함에 대한 경탄은 지속되었다. ‘우리나라의 명산은 모두 백두산에서 나온 것이지만 맑고 기이하고 수려함으로는 풍악산이 최고이다.’<sup>7)</sup>라는 인식은 그러한 금강산에 대한 이해를 잘 보여준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서 명이나 일본에서 온 사신들도 가보기를 원할 정도였다. 명의 사신이 남긴 다음의 언급, 곧 ‘고려국에 태어나서 금강산을 한번 직접 보는 것이 소원이다.’(願生高麗國,

6) 李東沆, 『暹庵先生文集』 권4, <海山錄> “頃者, 斷髮嶺之開雲, 九龍淵之奇遊, 南厓之觀日, 有若陰助, 今日海遊, 風息浪靜, 鼓枻中流, 興極而歸, 此誠馮夷海伯顯相吾輩也. 年踰半百, 始爲仙窟之遊, 而芥滯匈懷, 自此豁然, 豈非幸耶.”

7) 洪仁祐, 『耻齋遺稿』 권3, 「關東錄」 “吾東方名山如妙香楓岳九月智異. 人所膾炙, 而皆白頭山之支裔也. 然清麗奇秀, 唯楓岳爲第一.”

親見金剛山)’는 말이 속담으로 유행할 정도여서 인용하였던 것은 금강산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sup>8)</sup>

조선후기에도 금강산에 대한 선호는 높아서 금강산 여행은 크게 유행하였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산수(山水)는 단지 자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닮는 수기(修己)를 의탁하는 대상이기도 하여 산수를 유람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단지 격물과 수기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명산을 여행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으로서 여행, 혹은 기행이 등장한 것은 우선 조선의 국토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진 것에서 기인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에 조선에서는 청에 패배한 현실에 대해 조선이 명을 계승하며 우리가 중화문화를 대신한다는 조선중화주의(朝鮮中華主義)가 팽배하게 되었다.<sup>9)</sup> 이전까지 선진문화의 기준을 중국의 문화에서 찾던 것에서 벗어나 조선이 중화문화의 계승자이자 더 나아가 주체라는 생각 속에서 조선의 국토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sup>10)</sup>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조선의 국내 각처에 대한 여행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현실에서 여행을 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랐다.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건, 즉 교통이나 숙박 등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인프라 역시 부족한 조건에서 여행은 특별한 계층만이 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유람하는 문화가 증가하였다.

조선후기의 현실에서 여행이 증가한 현상은 이른바 산수 유람기라고 하는 기행문의 증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까지

---

8) 『태종실록』, 태종4년, 9월 21일조.

9) 조선중화중화주의에 대해서는 정옥자의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998과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의 연구가 참고된다.

10) 물론 이러한 인식은 비단 국토라는 지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한시, 가사, 역사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선 문화에 대한 재인식으로 이어진다. 17세기 이래 조선 고유의 문화를 찾으려는 모든 경향은 이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수 유람기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유람기가 18세기에 들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조사된 597편 가운데 관직에 출사하지 않았던 처사에 의해 작성된 유람기가 크게 증가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17세기 후반에 18.7%였던 것이 18세기 전반에는 55%, 18세기 후반에는 38.6%가 되었다.

앞서 조선의 국토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인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관직을 경험하지 않은 사대부까지 유람에 참여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7세 후반쯤에는 점차 전쟁으로부터의 복구가 완료되고 농업발달에 따른 상공업의 발달, 조세의 금납화, 상평통보의 유통 등 화폐경제의 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우선 중요하게 작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17세기 후반 이후 이른바 정치적으로는 서인과 남인의 정권 경쟁이 점차 서인의 우세로 마감되면서 경향(京鄕)이 분기되는 현상이 나타나 관직 진출에서 이전보다는 지역 출신의 사대부들에게 불리해진 경향이 존재하게 된 것도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17세기 후반 이래 서인-노론 계열에서는 농연(農淵)일파의 문예활동이 유람에 영향을 끼친 반면에 중앙정계에서 소외되었던 소론과 남인 등에서는 정치에서의 소외감을 유람으로 해소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게 되었다. 지방의 사대부들은 수기와 궁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유람 외에도 유명 선배학자의 근거지인 서원(書院)이나 별서(別墅) 방문, 관직이나 유배 등으로 새로운 곳을 찾을 때의 유람 등으로 유람이 증가하였다. 물론 유람기를 남긴 대다수는 아직 관직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은 사대부 역시 유람에 적극 동참하였고, 유람기까지 남

11) 17세기 후반, 18세기 전반, 18세기 후반으로 나눌 경우 산수 유람기 작품은 각각 약 171편, 224편, 202편이며, 작가 수는 각각 69명, 77명, 70명이다. 이경순, 「17~18세기 士族의 유람과 山水空間 인식」 서강대학교 사학과박사학위논문, 2014, 40~45쪽 참조. 그런데 18세기 후반이 전반보다 편수가 작은 것은 필자도 인정하였듯이 추가로 조사, 발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체를 모두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17세기에 비해 18세기에 유람기 관련 작품이 크게 증가한 추세는 확인할 수 있다.

겼던 것이다.

경상도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15세기 후반 김종직과 그 문하의 영남사림에 의해 유람기가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16세기 후반 이후에는 조식과 같은 처사들이 산수를 유람하는 풍조가 많아졌다. 그리고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까지의 시기를 볼 때 도내를 여행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다. 유람기를 조사한 연구에서 전체 유람기록 중 가장 많은 편수가 남아있는 지역도 경상도 지역이었다.<sup>12)</sup> 경상도 지역의 산수에 대한 유람 역시 18세기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경상도 지역에서 사대부의 문집이 가장 많이 편찬된 사정과는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상도의 사대부나 경상도의 지방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람이나 여행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7세기 후반 이래 중앙정치에서 크게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 경상도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선배 유현의 자취가 남아 있는 지역의 명승지를 찾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에서 의미를 찾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8세기 전반에 이러한 유람기들이 급증하였는데, 대체로 경상도에서 출발하여 경상도 내의 명승, 특히 산을 찾았던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대부들이 많이 찾았던 명승지는 전국적으로 본다면 금강산, 사군(四郡: 단양·영풍·제천·청풍), 지리산, 청량산, 안동, 가야산, 화양동(괴산), 관동, 백운산, 설악산, 수락산 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지리산, 청량산, 안동, 가야산 등은 모두 경상도 지역에 있었으며, 지리산의 경우 특히 경상우도에 거주하던 사족들에게는 자주 찾는 대상이었다.<sup>13)</sup>

그에 비해 금강산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유람기의 증가현상과 궤를 같이하며 금강산유람기 역시 시기가 지날수록 증가하였다. 금강산 유람기의 경우 이에 관한 연구를 보면, 고려시대 1편, 15세

12) 이경순, 2014 앞의 논문, 74쪽. <표12> 1651~1799년 유람기에 나타난 유람지도별 분포 참조

13) 강정화, 「유람록으로 본 지리산 유람과 그 형상」 『지리산과 한국문학』, 보고서, 2013. 180~181쪽

기 2편, 16세기 6편, 17세기 28편, 18세기 49편, 19세기 이후 80편으로 집계된다.<sup>14)</sup>

금강산을 유람하고 남긴 유람기의 경우에 다른 지역의 유람기에 비해서 몇 가지 나타나는 특징은 주목할 만하다. 다른 유람기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산행 과정에서 격물치지를 통한 궁리와 수기 등에 관련된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찬탄하거나 금강산에 축적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 서술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흥미롭다.<sup>15)</sup> 금강산의 경관이 워낙 다른 산에 비해 뛰어나기도 하고, 또 기이하기도 한 점이 아마 이러한 경향을 낳게 하였는지도 모르겠다.

17세기까지의 금강산 유람기 역시 대체로 관인들의 경우가 주체가 된 경향이 많다. 금강산 유람의 동기는 대체로 금강산 권역 및 인근 지역에 지방관으로 부임하였을 때나 업무로 인해 금강산 권역을 찾았다가 유람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여기에 더해 가족이나 친지 등이 지방관으로 부임하였을 때 그들의 임지를 찾아서 유람한 경우도 있었다.

18세기에는 유람기를 작성하는 주체에 다양한 작가가 등장하는 특징이 있었다. 비단 금강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작가층에 지역의 사족이나 중인, 서얼, 승려층이 포함된 것은 매우 주목이 되는 현상이다.<sup>16)</sup> 금강산을 유람하고 작성하는 유람기에 이동향을 비롯한 지역의 사족이나 중인이었던 박영석은 서울에 거주한 여행시인으로 금강산에 대한 유람기를 남겼다. 또 승려인 法宗(1670-1733)은 금강산과 묘향산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유람기가 모두 일기의 형식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유산기의 경우 17세기와 18세기에는 형식상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즉 유산기의 경우 공안파의 소품체(小品體)에 영향을 받아 단형의 유산

14) 윤호진 외, 「유람록으로 보는 금강산 유람 - 17세기를 중심으로」 『금강산유람록』1, 민속원, 2016, 372쪽

15) 윤호진 외, 2016 앞의 논문, 375쪽 참조

16) 이경순, 2014 앞의 논문, 52쪽 참조

기가 나타났으며 여행하는 도중에 승경에 대해서 사실적인 기술의 증대, 일상에 대한 상세하고 강렬한 묘사 등이 등장하였다. 또 ‘日記’의 제목으로 취하여 여행하는 노정에서 만난 인물이나 사건, 풍속 등 일상적인 소재를 자세하게 서술하기도 하였다. 일기형식은 종래에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시기에 좀 더 많이 등장하였는데, 개인의 체험이 갖는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동항의 『해산록』은 일기의 형식을 빌어서 쓴 유산기이자 유람기로서 매우 주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 IV. 이동항 기행의 특징

이동항의 여행은 <해산록>에 따르면 정구(鄭誅, 1543~1620)와 장현광(張顯光, 1554~1634)의 문묘종사를 청하는 상소 때문에 1590년(정조 14)에 서울로 온 일에서 시작되었다. 이동항은 이때에, 목윤중(睦允中), 우경모(禹景謨), 최홍진(崔鴻晉) 등과 함께 금강산 구경을 약속하였다.<sup>17)</sup> 이후 상소의 일이 해결되자 다음해 봄에 남한산성으로 가서 우경모의 집에서 10여 일을 머물며 여행의 준비를 하고 떠났던 것이다.

『해산록』의 첫머리에는 풍악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풍악산의 산줄기는 북관(北關)에서 솟아오른 백두산의 남쪽 가지가 달려 내려와 경성(鏡城)의 서북에서 장백산(長白山)이 되고, 갑산(甲山)의 동쪽에서는 황토령(黃土嶺)과 후치령(厚峙嶺)이 되고, 북청의 북쪽에서는 두무산(頭蕪山)이 되고, 함흥의 서쪽에서는 황초령(黃草嶺)이 되고, 영흥(永興)의 서북쪽에서는 일산(弔山)이 되고, 고원(高原)의 서쪽에서는 기린산(麒麟山)이 되고, 문천(文川)의 남쪽에서는 마식산(馬息山)이 되고, 덕원(德源)의 서쪽에서는 설운령(雪雲嶺)과 분수령(分水嶺)이 되고, 안변(安邊)의 서쪽에서는 철령(鐵嶺)이 되고, 남쪽에서는 황룡산(黃龍山)이 되고, 통천(通川)의 서쪽에서는 추지령(楸池嶺)과 쇠령(瑣嶺)이 되고, 고성(高城)의 서쪽에서는 온정령(溫井嶺)이 되어 비로소 영겨몽쳐져 우뚝 솟아 바다를 짓누른다. 바로 이것이 풍악산이다.<sup>18)</sup>

17) 李東沆, 『渥庵先生文集』 권4 <海山錄> 2a

이와 같이 풍악산이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온 줄기라는 인식은 곧 조선 후기에 한반도의 산맥체계에서 조종산(祖宗山)으로서 백두산이 인식되었다는 사실이 널리 공유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백두산이 모든 산의 조상에 해당하는 곤륜산(崑崙山)의 적통으로서 조선이 중화가 된 근거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백두산에서 금강산이 유래하였음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여행이 갖는 정신사적 배경을 지리를 통해 설명한 것이다. 물론 백두산의 줄기는 이후 남쪽으로 간성,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 지리산의 화엄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서술하여 한반도 전체를 관통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동향이 여행하였던 금강산에는 특히 불교와 관련된 이름과 사찰, 암자가 많았다. 또 금강산을 여행하려면 사찰에서 유숙하거나 남여(籃輿)를 메는 승려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이동향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다. 그는 신라와 고려 때부터 불교를 숭상하여 승려들이 나라 안의 명산과 큰 산에 흠어져 살면서 불교식 이름을 붙이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풍악산이 더욱 심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하늘이 만들고 땅이 만든 기이한 경관과 뛰어난 구경거리가 어찌 더러운 이름 때문에 해로워질 수 있겠는가 반문하면서 애써 무시하였다.<sup>19)</sup>

또 마하연 암자의 남쪽 석대(石臺) 위에 있던 바위를 사람들이 담무갈(曇無竭) 보살로 부르는 것을 보고서 이에 대해 환상과 같은 이 경치에 가탁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을 놀라게 한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들이 이것을 믿고 담무갈로 모시고, 표훈사와 정양사의 주불 모두 담무갈로 보고 심지어 산꼭대기의 바위마저 담무갈의 화신으로 보아서 정성스레 모시는 것을 가소롭다고 하였다.<sup>20)</sup> 이렇게 이동향은 불교에

18) 위와 같은 곳, 1a, “楓嶽之脈, 自此北關, 而起白頭, 南條馳下, 鏡城之西北, 爲長白山, 甲山之東, 爲黃土嶺厚致嶺, 北靑之北, 爲頭燕山, 咸興之西, 爲黃草嶺, 永興之西北爲劔山, 高原之西, 爲麒麟山, 文川之南, 爲馬息山, 德源之西, 爲雪雲嶺分水嶺, 安邊之西, 爲鐵嶺, 南爲黃龍山, 通川之西, 爲楸池嶺瑣嶺, 高城之西, 爲溫井嶺, 始融結斗起, 雄壓海. 維是爲楓嶽也.”

19) 위와 같은 곳, 1b

비판적이기는 하였지만 무시하거나 가소롭게 여기며 더 이상 적극적인 비판을 가하지는 않았다. 사대부 유람자들이 산을 안내하며 각종의 불교 전승을 소개하는 승려들을 그 자리에서 꾸짖거나 진술의 허위성을 강변하는 데에 열을 올린 경우와는 차이가 있었다.<sup>21)</sup>

이동항의 여행에서는 유교 관련 유적에 대한 방문이나 확인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선 이동항의 여행 일정에 포함된 선현의 유적에 대해서는 직접 찾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서원과 유현, 선현의 유필(遺筆) 등이 확인의 대상이었다.

유현을 모신 서원을 방문한 경우는 경기도 포천의 용연서원(龍淵書院),<sup>22)</sup> 옥병서원(玉屏書院), 강원도 통천의 풍계서원(楓溪書院) 등이다. 포천에 있는 용연서원은 이덕형(李德馨, 1561~1613)과 조경(趙綱, 1586~1669) 두 선생을 모신 곳으로서 이동항은 이곳에서 두 선생의 초상화를 보고 감상을 남기기도 하였다.<sup>23)</sup> 서원을 들르기 전에 이동항은 조경의 묘소를 찾기도 하였다. 옥병서원은 박순(朴淳, 1523~1589)을 모신 곳으로서 이곳에서도 영정을 보고 산림의 은일지사와 같다는 감상을 남기기도 하였다.<sup>24)</sup> 통천의 풍계서원은 정구(鄭述)가 1592년 통천군수로 와서 교화를 하였다고 만들어진 서원이라고 기록하였다.<sup>25)</sup> 풍계서원의 옆에는 조선초기의 무장인 최윤덕(崔潤德, 1376~1445)을 기리는 별사(別祠)인 상열사(尙烈祠)가 있어서 이곳에 들어가 절을 하였다. 서원이 아닌 암자이기는 하지만 오세암에서는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영정 2폭을 살피기도 하였다.<sup>26)</sup>

20) 이동항 원저, 최강현 역주, 『지암의 해산록』, 4월 15일, 국학자료원, 52쪽

21) 이경순, 「조선후기 사족(士族)의 산수유람기에 나타난 승려 동원과 불교 전승 비판」 『한국사상사학』45, 2013, 390~395쪽 참조

22) 이동항 원저, 최강현 역주, 『지암의 해산록』, 3월 30일, 국학자료원, 13쪽 <해산록> 3월 30일 기사에는 용주서원(龍州書院)으로 되어 있으나 용연서원의 오키로 보인다.

23) 앞의 책, 3월 30일, 14쪽

24) 앞의 책, 4월 1일, 18쪽

25) 앞의 책, 4월 27일, 76쪽

26) 앞의 책, 5월 9일, 100쪽



다음으로 선현이 남긴 유필(遺筆)의 경우 특히 여행을 다니면서 바위에 새긴 금석문을 유의하여 살펴보고 일기에 기록하였다. 전서(篆書)에 능하였던 이동항은 금석문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으며, 전서 글씨를 요청 받았을 때는 대체로 써주기도 하였다. 영평(永平) 팔경의 하나인 금수정(金水亭)에 가서 명필인 한호(韓濩, 1543~1605)가 쓴 ‘洞天石門壺中日月醉裏乾坤’이라는 문에 새겨진 글씨를 보았고, 바위에 새겨진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의 ‘回瀾石’이라는 글씨와 동쪽 벽에 새겨진 양사언(楊士彦, 1531~1584)의 ‘浮雲壁金水亭’이라는 글씨, 정자 주인인 김경복(金慶復)이 쓴 ‘琴臺釣臺’의 글씨 등을 본 것을 남겼다. 또 40여 보 떨어진 곳에 있는 백운루(白雲樓)에 쓰인 이서(李紱, 1662~1723)의 ‘金氏燕居之所’라는 액자도 보았다.<sup>27)</sup> 한호나 양사언, 이서는 모두 조선을 대표하는 명필들이기에 이동항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하였다.

이 가운데 전서에 능하였던 이동항에게 특히 관심이 있었던 인물은 봉래 양사언이었다. 일기의 곳곳에 양사언 관련 글씨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다. 만폭동 바위에 새겨진 양사언의 유명한 글씨인 ‘蓬萊楓嶽元化洞天’의 전서,<sup>28)</sup> 발연(鉢淵) 상류의 암석에 새겨진 ‘蓬萊島’ 글씨,<sup>29)</sup> 양사언이 짓고 살았다고 전하는 감호(鑑湖)의 비래정(飛來亭)<sup>30)</sup> 등이 모두 그에 해당하였다. 특히 내금강의 최고명소인 만폭동의 바위에 쓴 전서에 대해서는 최고의 칭찬과 상세한 묘사가 돋보였다.

글자의 뼈대가 웅건하여 마치 용이 날아오르는 듯하기도 하고, 호랑이가 허공으로 뛰어오르는 듯도 하였다. 등나무 넝쿨과 칩덩굴들이 뒤얽혀 있는데, 옛사람과 지금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 놓은 것이 여기저기 흩어져 온 골짜기 안에 가득하여 조그마한 돌조각까지도 성한 곳이 없으며, 큰 붓을 휘둘러 골짜기 이름을 새겨 놓은 것도 한둘에 그치지 않으나, 짝이고 닳아서 모두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봉래의 붓글씨만이 천고에 길이 이름을 남겨 후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어찌

27) 앞의 책, 4월 1일, 16~17쪽

28) 앞의 책, 4월 12일, 39쪽

29) 앞의 책, 4월 18일, 63쪽

30) 앞의 책, 5월 2일, 88쪽

신선이 노닐던 곳에 남긴 붓글씨와 훌륭한 분이 남긴 작품이 명산의 뛰어난 경치에 걸맞은 자취가 아니겠는가? 선비는 마땅히 그 인품이 특실하면, 그 이름은 저절로 우주와 함께 다함이 없을 것인데, 어찌 오직 붓글씨 같은 작은 재주로 오래 남기려 하겠는가?<sup>31)</sup>

위와 같이 양사언에게 최고의 상찬을 하면서 그 곳에 함부로 글씨를 남기면 안된다는 경고를 동시에 하면서도 이동항 역시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유혹을 벗어날 수는 없어 결국 만폭동 시냇가 반석에 중들에게 시켜 새기도록 하였다.<sup>32)</sup>

이동항은 또 자신에게 글씨를 칭하는 사람들에게 전서를 직접 써주기도 하였다. 포천에서 일행에게 주안상으로 대접한 김택인 형제들과 이효성을 위해 고전(古篆)으로 대자(大字)를 써주기도 하였고,<sup>33)</sup> 평상시 알고 지내던 양양의 선비인 노중경(盧重慶)에게도 전서로 크게 십여 장을 써주기도 하였다.<sup>34)</sup> 뿐만 아니라 흡곡현령(歙谷縣令)이었던 정재운(丁載運)과 함께 시중대에서 지은 오언시 연구(聯句)들을 관아의 동헌에 새겨 걸기도 하였다.<sup>35)</sup> 이와 같이 이동항의 여행에서 그의 장기인 전서를 비롯한 서예의 솜씨는 여행에 큰 활력을 주는 것이었다. 여행지 곳곳에 새겨진 명서예가의 글씨를 확인하고, 자신 역시 글씨로써 교유하였던 것이다.

이동항의 일기에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다른 하나는 대상에 대한 푼진(逼真)한 묘사이다. 일반적인 일기에서는 대체로 일상의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묘사의 경우 일지(日誌)에 서술하는 것과 같이 간단한 기술이나 묘사가 주를 이룬다. 대상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더라도 그 분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동항의 일기에서는 18세기에 유행한 글쓰기의 형식인 여행 중에 만난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매우

---

31) 앞의 책, 4월 13일, 39~40쪽

32) 앞의 책, 4월 15일, 46쪽

33) 앞의 책, 4월 2일, 19쪽

34) 앞의 책, 5월 6일, 93쪽

35) 앞의 책, 4월 26일, 73~74쪽

핍진한 기술이나 일상적인 장면에 대해서도 강렬한 묘사를 하는 것이 보인다. 예를 들어 금강산 최고의 조망 명소인 정양사 혈성루(歇惺樓)에서 금강산의 암봉을 묘사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험삼아 혈성루에 올라 사방으로 웅장하게 펼쳐져 있는 산을 바라보니, 동북으로 우뚝하게 하늘 높이 솟아 있는 것이 비로봉(毗盧峯)이었다. 중간의 한 가지가 남으로 내려와서 중향성(衆香城)이 되고, 서쪽으로 조금 낮은 것이 영랑재와 옹호봉이 되고, (중략)

개심봉에서 따로 갈라져 나온 한 갈래는 동쪽으로 내려와서 보현재와 금강대(金剛臺)와 청학봉(靑鶴峯)이 되어 그 급히 달리는 모양과 날아 솟구치는 듯한 기세의 웅장함과 뛰어남은 마치 긴 바람이 바다를 휘말아 올림과 같고, 구름바다가 넘실대는 것 같았다. 넓게 자리잡아 험하게 솟아 있는 모양은 존엄하기가 궁궐 같기도 하고, 서울 같기도 하여 사해(四海)를 빼어나게 위압하는 듯하였고, 앞뒤로 줄지어 선 듯하고, 좌우로 겹겹이 포개진 듯한 것은 마치 여러 하늘에서 꽃비를 내려 많은 부처님 앞에 절하며 불공을 드리는 것 같았으며, 가파르고 곳곳하며 기기 괴기한 것은 마치 새들이 깊은 숲속에서 놀라 솟구치는 듯하고, 네발짐승들이 높은 산에서 놀라 뛰는 것 같은데, 만약 거기에 저녁빛이라도 비껴 비치면 새하얗게 빛나는 깨끗함은 겨울이나 봄과 너무도 비슷할 것이고, 혹 비가 내리거나 눈이 쏟아질 때라면 먼산 머리에 흰 눈을 뒤집어 쓴 듯 아득할 것이다. 때때로 고개를 돌려 살펴보면, 번번이 놀랍고 의아스럽기만 하였다.(하략)<sup>36)</sup>

이러한 상세한 묘사는 외금강의 명소인 구룡폭포(九龍瀑布)에 대해서도 표현되었다.

구룡폭포를 쳐다보면, 비로소 구름 병풍 위로 그 머리를 희미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몸을 돌려 부지런히 걸어서 동편 석벽의 중허리를 돌아 들어가니, 은빛 물결이 깎아지른 듯한 바위 벼랑에 거꾸로 달려 있었다. 그 모양은 마치 3천 미터는 될 듯한 깎(명주실로 짠 비단)을 빨아 아득히 높은 하늘에 걸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3백 미터는 될 듯한 나는 용이 깊은 산골 시냇물을 마시려고 구부리고 있는 듯도 하였다. 남은 물결은 방울방울 흩어지면서 바람 따라 빙글빙글 돌아서 맑은 하늘에 물을 뿌리고 씻어낸 듯하니, 마치 천상 옥루(玉樓)에서 신선 아이가 옥으로

36) 앞의 책, 4월 13일, 43~44쪽

만든 꽃을 비로 쓸어내리는 듯하기도 하고, 달나라의 선녀가 밝은 옥구슬을 흘려서 떨어뜨리는 듯도 하였다. 높고 뾰족한 흰 산봉우리들이 앞뒤로 감싸 호위하듯 어깨를 나란히 하고, 머리가 가지런히 이어져 허공중에 빠지고 모자라는 곳을 가려주고 기워주는 듯하며, 좌우의 흰 석벽들은 세력을 모아 에워안아서 동그랗게 병속의 하늘과 땅을 이룬 듯하였다. 발걸음을 옮겨 남쪽 석벽으로 가니, 돌바닥이 미끄럽고 결이 고와 반드르르하며, 너무 빛깔이 희어 고아한 문체가 나도록 깨끗하였다. 곧바로 폭포 바닥에 이르러 돌부리를 부여잡고 아래를 내려다보기도 하고, 돌 위에서 구멍을 들여다보기도 하니 등글기가 가마솔과 같은데, 물이 가득 담겨서 빛은 시커멓고 용비린내가 사람을 침노하였다. 작은 부리로부터 물이 넘쳐 흘러 다시 급히 쏟아지는 3미터 남짓한 폭포가 되고, 그 폭포 아래 비로소 큰못이 이루어져서 얼마나 깊은지 침침한데, 물이 흐르는 듯도 하고 샘솟는 듯도 하여 감히 허리 굽혀 들여다 볼 수가 없었다.(하략)<sup>37)</sup>

이상과 같은 묘사에서 이동향이 금강산의 경관에 얼마나 감탄하였는지를 살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여행한 곳 가운데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으로 최고로 꼽아 상찬을 마지않았던 지리산과 비교해 보아도 금강산이 한 수 위임을 인정하는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38)</sup> 동시에 이를 표현하는 것 역시 당시 유행하는 문체에 충분히 영향을 받았던 것도 알 수 있겠다.

이동향은 여행의 일정을 소화하는 데에 여러 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출발할 때부터 당대의 재상인 체제공으로부터 술병과 알약, 반찬거리와 종이뭉침의 편지첩, 그리고 책력 수십 책을 받았다.<sup>39)</sup> 이는 곧 이동향 일행은 관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직의 도움을 받아 여행하였던 종래의 방식을 통해 여행이 이루어짐을 예고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동향 일행은 여행지의 곳곳마다 군수나 현령 등 지방관의 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으며, 사찰 승려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여행 도중에는 관이나 사찰의 도움만이 아니라 돈을 주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여행 방식은 종래에

---

37) 앞의 책, 4월 21일, 68~69쪽

38) 앞의 책, 4월 8일, 28쪽

39) 앞의 책, 3월 27일, 11쪽

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당시 늘어난 여행객들은 돈을 치르면 숙식을 해결하는 여행환경이 조성된 것을 활용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동항일행이 활용한 여행방식은 이전에도 활용되었던 관을 이용하거나 아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관의 지원을 받은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이동항의 여행지원 조달

월	일	여행지원 또는 구입 내역	획득 방법	증여자 또는 구입처	비고
3	27	술병, 알약, 반찬거리, 종이묶음, 편지첩, 책력	증여	채제공	
4	3	쌀1말	구입	권씨(權氏)	龍華村
	6	엽전2꾸러미, 쌀2말, 콩2말, 꿀2되, 미숫가루5되, 쇠고기육포2첩, 담배2근, 한지2묶음	증여	金化현감 洪益烈	金城,淮陽에 청탁편지
	6	남여꾼(단발령)	증여	금성군수 鄭東輔	통보받음
	10	술1병, 꿀2되, 미숫가루2되, 담배2근, 육포1첩	증여	淮陽부사 韓晩裕	장안사, 표훈사에 주선
	16	점심	증여	유점사 승려	
	22	쌀을 사 주고 저녁밥을 지어달라고 함. 숙박	구입	雲巖店	
	24	관아에서 숙박. 다음날 시중대에서의 음식	증여	歙谷縣令 丁載雲	
	27	엽전8케미, 쌀3말, 콩2말, 꿀2되, 미숫가루5되, 담배2근, 한지40장, 반찬2그릇, 마른물고기3손, 굽은초30자루	증여	흙곡현령 정재운	
	27	바닷놀이(배 지원)	증여	고성군수	

5	6	쌀3말, 바다생선1묶음, 미역2속, 籃輿僧(신흥사)	증여	襄陽府使 申大年	
	12	주안상(합강정)	증여	麟蹄縣監 申光河	아들 申幾明 통합

위의 여행과정에서 지원받거나 구입한 것을 살펴보면 이동항 일행은 관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기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는 여행 과정에서 모든 지원을 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약간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쌀을 구입하기도 하였고, 이를 매개로 숙박을 하기도 하였다. 또 돈을 치르고 숙박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이동항의 『해산록』을 중심으로 18세기 말에 경상도 사대부가 남긴 금강산과 관동 일대의 여행일기를 살펴보았다. 본래 산수를 즐기고, 산수를 심신 수양의 방편으로 삼는 것은 성리학을 정신적 바탕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제약으로 인해 멀리 여행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다.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국내의 명승지로 여행이 증가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었다. 우선 경제적인 성장으로 인해 여유가 있게 된 점, 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국토에 대한 재인식을 하게 된 점, 이전과는 달리 처사적인 은일(隱逸)이 아니라 기호의 따른 취미로서 인식되게 된 점, 박학을 중시하는 인문, 지리 탐구활동이 증가한 점, 이를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문예 취향이 나타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다.

이동항의 금강산 여행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 우선 경상도에서 관직을 가지지 않은 사대부로서 흔히 가던 여행장소가 아니라 금강산을 여행한 점이다. 경상도의 사대부들이 다른 도에 비해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기록을 남긴 경우도 많았지만 대부분 경상도 경계 내에 있는 곳이 여행의 대상이었다. 그에 비해 이동항과 같이 금강산과 관동지역의 명소를 여행한 경우도 드문 사례이다. 그래서 김화 현감과의 대화 가운데 현감은 이동항이 영남 출신인 것을 알고 감탄하기도 하였던 것이다.<sup>40)</sup>

둘째로는 금강산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돋보인다는 점이다. 18세기에는 일기 형식의 글쓰기도 더욱 유행이 확대되었고, 또 대상에 대한 상세한 묘사 역시 글쓰기의 방식으로 유행하였는데, 이러한 사례의 하나로서 의미가 있다. 성리학의 격물치지 방식을 추구하여 금강산에 암자를 76개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서술하는 등 곳곳에 치밀하게 금강산을 살핀 흔적이 있다.<sup>41)</sup>

셋째로는 여행과정에서의 일상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서쓰는 것에 일가를 이루었던 이동항은 여행 도중에 곳곳의 정자나 바위에 쓰여있는 명필의 글씨를 유의하여 기록하였고, 또 전서를 써주기도 하는 등 교유를 하였던 정황을 전해주고 있다. 정자나 관청에 걸렸던 편액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도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넷째로는 다른 자료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여행 과정에서의 경비나 물품 등 여행 지원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동항은 관인은 아니었지만 당대의 재상 채제공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하여 금강산 주변 수령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로부터 각종 물품을 선물로 지원받기도 하였고 숙박이나 잔치음식, 말이나 남여(籃輿) 등을 공급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명승지를 여행하였던 전래적인 방식으로 18세기 말의 상황에서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기록에는

40) 앞의 책, 4월 6일, 24쪽

41) 암자에 대한 기록은 <해산록>에 이어진 <풍악총론(楓嶽總論)>에 기록되어 있다.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돈을 치르고 쌀을 사거나 숙박을 하였던 새로운 상황도 일부 기록되어 여행의 조건이 달라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 이 논문은 2021년 1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3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李東沆, 『遲庵先生文集』 (국립중앙도서관, 古3648-62-544-1-3)
- 李東沆, 『遲庵先生文集』, 경인문화사 영인본(한국역대 문집총서2408), 1994
- 李東沆 원저, 崔康賢 역주, 『지암(遲庵)의 해산록(海山錄)』, 국학자료원, 1995
- 『耻齋遺稿』(洪仁祐)
- 『태종실록』
- 『근역서화징(權域書畫徵)』
- 『한국역대서화가사전』
- 강정화, 「유람록으로 본 지리산 유람과 그 형상」 『지리산과 한국문학』, 보고서, 2013
-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
- 윤호진 외, 「유람록으로 보는 금강산 유람 - 17세기를 중심으로」 『금강산유람록』 1, 민속원, 2016
- 이경순, 「조선후기 사족(士族)의 산수유람기에 나타난 승려 동원과 불교 전승 비판」 『한국사상사학』45, 2013
- 이경순, 「17~18세기 士族의 유람과 山水空間 인식」 서강대학교 사학과박사학위 논문, 2014
-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998

## 18th Century Gyeongsang-do Nobleman's Trip to Mt. Geumgang and The characteristics

- Focusing on the "Hae San Rok" of Yi Donghang (1736-1804) -

Jung, Jae-hoon

The diary of the Nobleman, which increased from the 16th century, expanded further in the 18th century and became a daily routine of the Nobleman. Lee Dong-hang (1736-1804)'s "Hae San-rok" is a travel diary recorded by the four great-great-grandfathers who lived in Gyeongsang-do in the late 18th century when they visited Geumgangsan Mountain.

Lee Dong-hang's travel diary to Geumgangsan Mountain has interesting features in many ways. First, he traveled to Geumgangsan Mountain, not a common place to travel, as a Nobleman who did not hold government posts in Gyeongsang-do. Second, the detailed description of Mt. Geumgang stands out. In the 18th century, diary-style writing became more popular, and detailed descriptions of objects were also popular in the way of writing, meaningful as one of these examples.

Third, daily life in the travel process is described in detail. Yi Donghang, who was a good writer of calligraphy, carefully recorded the calligraphy he found during his trip and also wrote the calligraphy. It also describes the process of writing the pyeonaeks that were caught

in the pavilion or government offices. Fourth, detailed data on travel support, such as expenses and goods in the travel process that are difficult to identify from other data, can be found.

**keywords :**

Yi Donghang, Hae San Rok, Mt. Geumgang, East Sea Coast, Seal scrip

